

#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결정요인 분석\*

강혜정\*\*

## Keywords

여성결혼이민자(female marriage immigrants),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연립 이변량 순위 프로빗 모형(simultaneous bivariate ordered probit model)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the current socioeconomic status evaluated subjectively by female marriage immigrants,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2012. The study employs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of a simultaneous bivariate ordered probit model, in order to resolve the endogeneity of the socioeconomic status in their home country used as an explanatory variable in the model. The empirical evidence suggests the subjective assessments for the current socioeconomic statu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ir Korea life features, the economic activity of their spouse, and family's economic situation etc. The results also demonstrate that women marriage migrants of low socioeconomic status in their home county are more likely to under-evaluate their current status, implying that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inequalities in the social hierarchy occurs.

## 차례

- |           |            |
|-----------|------------|
| 1. 서론     | 4. 분석 결과   |
| 2. 이용한 자료 | 5. 요약 및 결론 |
| 3. 분석모형   |            |

---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2S1A5A8025020).

\*\*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부교수 겸 농업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 e-mail: hjkang@jnu.ac.kr

## 1. 서론

2000년대 들어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sup>1</sup>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농촌의 경우, 농가인구의 고령화와 농촌사회 재생산 위기 극복의 새로운 대안으로 국제결혼이 적극 추진되면서, 2007년 농림어업종사자의 국제결혼 비율이 40% 이상을 넘어서기도 하였다. 2006년 이후 한국남성의 국제결혼건수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농림어업종사 남성의 국제결혼 비중은 23%에 달한다(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입은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 여성들의 유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일반적인 국제적 인구이동(international migration) 현상과는 차별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sup>2</sup> 특히,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의 50% 이상이 동남아시아 개도국 출신으로, 그들 대부분이 모국 가족부양 의무와 사회계층 상승을 꿈꾸며 결혼 이주를 선택하고 있다. 이런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이주는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시대의 가족 생존전략<sup>3</sup>이라는 신경제이론<sup>4</sup>으로 설명될 수 있다.

실제조사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60% 이상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한국사회에서 살기 위해 혹은 취업하기 위해서, 또는 본국의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등과 같은 경제적 목적을 결혼의 목적이라 응답한 바 있다(박재규 2006; 강혜정 2009). 즉, 다수의 여성 결혼이민자는 모국에서보다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가 상승하기를 희망하며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국내생활이 모국의 생활수준에 비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절망감을 갖게 되며, 결혼생활을 원

---

1 한국인 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을 여성결혼이민자로,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구성된 가족을 다문화가정으로 지칭한다.

2 라틴아메리카나 아시아 인구의 미국으로의 이동, 아프리카와 중동 인구의 유럽 이주, 유럽 인구의 라틴아메리카 이주 등 많은 대규모 인구이동이 있었고, 인구이동의 사회문화적 측면과, 특히 경제적 측면에 관해서도 이미 많은 연구들이 있다(Bodvarsson and Van den Berg 2009; Borjas 1999; Venturini 2004).

3 정현주. 2012. 1 “베트남 신부는 세계화의 하녀일까, 첩병일까?” 「신동아」 vol. 628, pp. 480-490.

4 신고전과 경제이론(neoclassical economics)은 이동자 개인의 관점에서 국가 간 임금과 고용조건 차이, 그리고 이주비용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끼치는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 간 이동의 신경제이론(new economics of migration)은 이동자 개인보다는,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족의 역할 및 가구수준의 국가 간 기대소득 차이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만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수도 있다(박재규 2013). 실제로 국제결혼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다문화가정의 이혼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전체 이혼율의 12%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사회적 이동(또는 사회계층 이동)(social mobility)은 개인이나 집단이 한 사회의 위치나 계급으로부터 다른 사회적 계급이나 위치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봉건시대에는 계층간의 이동이 어려웠으나, 현대에는 교육, 결혼, 선거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 간의 사회적 이동인 세대 간 이동, 한 개인의 생애 동안 사회경제적 지위가 변화하는 세대 내 이동(생애이동), 산업구조나 지역 특성과 사회적 기회의 변화로 생겨나는 구조적 이동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김병조 2000; 김중외 외 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계층 이동은 결혼으로 인한 국가 및 가구 경제상황의 변화로 발생한 구조적 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제결혼은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국가를 떠나 새로운 국가에서 가족을 형성하므로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에서 사회계층 이동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회계층 상승의 주 요인으로 교육과 소득 등을 지적하였듯이,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등은 사회계층의 상승 확률을 높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락 또는 상승하였다면, 이는 구조적 원인 때문일 것이며, 여기에는 모국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영향도 포함될 것이다. 즉, 모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불평등이 이민국가에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이동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모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연관성이다. 즉, 모국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모국에서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으면, 한국에서도 더 나은 생활수준의 배우자와 혼인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반대로, 모국에서 생활수준이 낮으면, 한국 배우자 가족의 생활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을 확률이 높다.

한편, 상대적인 국가 경제수준의 차이 측면에서 모국에서의 생활수준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한국에서의 생활수준을 높게 평가할 수도 있다. 박대식 외(2008)은 농촌 다문화가정이 적은 경지면적과 낮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본국 생활과의 상대적 비교 때문인지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반면, 모국에서보다 국내가구 소득이 많다고 하여도 상대적 빈곤감으로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락했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모국과 국내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연관성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단정 짓기가 어려워,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제결혼이 여성결혼이민자의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사회계층 이동 현상에 대한 근거와 더 나아가 안정적인 다문화가정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동안 관련 선행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 및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인 배경과 부부관계 및 사회연결망 등의 한국생활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김선희 2009; 박재규 2009; 김경미 2012; 허철행 2012; 임동현 2013; 박진아 2014). 박재규(2013)는 경기도내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이동 결정 요인을 이항로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바 있다. 본국의 사회계층 지위에 비해 국내 사회계층 지위가 개선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결혼이민자의 연령을 비롯하여 거주기간, 교육수준, 본국과의 교류, 주거환경 및 주택 소유형태, 국적 취득, 본인의 본국 취업, 배우자 취업, 그리고 가구 월평균 소득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초점을 맞추어, 모국과 한국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연관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모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외생변수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개인의 특성이나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일종의 내생변수이다. 즉, 이 변수의 내생성(endogeneity)을 무시하고 외생변수로 처리할 경우 분석 결과의 신뢰도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모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이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그 내생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구분하여 계층이동을 논의하기보다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 지위가 모국에서의 지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개선 혹은 악화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사회 계층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sup>5</sup> 본 연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들은 응답자의 주관적인 평가로서 ‘가장 못사는 가족(최하층)’에서 시작하여 ‘가장 잘사는 가족(최상층)’까지 순서대로 10개의 등급으로 표현된다. 이 경우 각 등급이 의미하는 바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등급은 순위로서의 의미만 가지지 어떤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 변수들이 개인별 특성에 의해

5 사회계층은 주관적,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다. 주관적 측정은 개인이 스스로 속해 있는 사회계층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심리적으로 자신을 과대 평가하거나 상위나 하위로 분류되기 꺼려 중간계층을 선택하는 경향도 있다. 반면, 객관적 측정은 직업, 소득수준, 교육 정도, 주거 장소 및 형태, 성취 정도 등으로 측정 가능하다(김종의 외 2014).

영향을 받는 정도는 흔히 순위 프로빗(ordered probit)이나 순위 로짓(ordered logit)모형을 이용해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모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이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되, 이 변수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에 의한 영향도 동시에 분석하므로, 이를 위해 이변량 순위 프로빗 모형(bivariate ordered probit model)을 적용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 사회경제적 지위와 모국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의 결정 요인을 모두 순위 프로빗 모형에 의해 분석하고, 후자의 변수들이 전자의 모형에 설명변수로 포함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두 모형이 통계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연립방정식 모형을 분석한다.

본고의 제2장은 이용한 자료에 대해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분석모형을 설명하고, 제4장은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해석한다. 마지막 제5장은 논문 전체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린다.

## 2. 이용한 자료

본 연구는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779호)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매 3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2012년 통계는 가장 최근 자료로서 전국의 다문화가족 중 15,341가구를 표본 추출하였다. 가구 구성표, 결혼이민자·귀화자, 한국인 남편 등 배우자, 만 9~24세 자녀 등 총 4종의 조사표가 별도로 조사되어 있다. 본 연구는 각 조사표상의 가구고유번호를 기준으로 4종의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이용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 특성 등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로 한정하였으며, 그 결과 분석에 이용된 표본은 여성결혼이민자 총 11,399명이다.

<표 1>은 분석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출신 국적별로는 동남아시아(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가 전체의 38%, 중국(조선족, 한족, 몽골)이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동북아시아(일본, 대만, 홍콩) 10%, 우즈베키스탄 및 러시아와 북미 및 서유럽/대양주가 각각 5%와 3%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 연령은 35세이며, 평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다. 평균 한국거주 기간은 11년, 평균 한국어 실력은 보통 정도이며, 36%가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79%가 모국에서 취업 경험이 있으며, 약 48%가 한국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분석대상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비고
출신국적	중국조선족 및 한족, 몽골	0.37	0.48	0	1	해당국 출신 1, 아니면 0
	동남아시아 <sup>1)</sup>	0.38	0.48	0	1	
	동북아시아 <sup>2)</sup>	0.10	0.30	0	1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0.05	0.21	0	1	
	북미, 서유럽/대양주	0.03	0.18	0	1	
	기타 <sup>3)</sup>	0.07	0.25	0	1	
연령		35.26	10.34	15	80	세
교육수준		3.05	1.22	0	6	0=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1=초등학교, 2=중학교, 3=고등학교, 4=대학교(4년제 미만), 5=대학교(4년제 이상), 6=대학원 이상
모국에서의 취업 여부		0.79	0.41	0	1	예=1, 아니오=0
한국 거주기간		10.73	6.43	3	72	년
한국어 실력		2.49	1.10	1	5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수준의 가중평균값, 1~5점의 연속변수
한국국적 유무		0.36	0.48	0	1	예=1, 아니오=0
현재 경제활동 여부		0.48	0.50	0	1	예=1, 아니오=0
배우자 연령		45.31	8.38	22	90	세
배우자 교육수준		3.12	1.13	0	6	0=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1=초등학교, 2=중학교, 3=고등학교, 4=대학교(4년제 미만), 5=대학교(4년제 이상), 6=대학원 이상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		0.89	0.31	0	1	예=1, 아니오=0
배우자 농업인 여부		0.11	0.31	0	1	예=1, 아니오=0
월평균 가구소득		3.98	1.42	1	9	1=50만 원 미만, 2=50~100만 원 미만, 3=100~200만 원 미만, 4=200~300만 원 미만, 5=300~400만 원 미만, 6=400~500만 원 미만, 7=500~600만 원 미만, 8=600~700만 원 미만, 9=700만 원 이상
자녀수		1.15	0.96	0	7	명
농촌거주 여부		0.37	0.48	0	1	예=1, 아니오=0

주: 1)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포함.

2) 일본, 대만, 홍콩 포함.

3) 태국, 동남아기타, 남부아시아, 기타 포함.

자료: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2.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과 모국가족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구분	한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모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표본 수	비중(%)	표본 수	비중(%)	
1	최상층	248	2.2	303	2.7
2	상층	329	2.9	569	5.1
3		828	7.3	1,009	9.1
4		930	8.2	930	8.4
5	중간층	989	8.7	826	7.5
6		5,713	50.1	4,917	44.4
7		717	6.3	671	6.1
8	하층	779	6.8	840	7.6
9		446	3.9	521	4.7
10		282	2.5	353	3.2
11	최하층	138	1.2	146	1.3
합계		11,399	100	11,085	100

자료: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국제결혼으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지위 하락’, ‘지위 상승’, ‘변화 없음’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3>과 같다.<sup>6</sup> 한국가족 사회경제적 지위가 모국가족보다 하락했다고 평가한 여성결혼이민자는 19.4%로 나타났고, 이들 중에는 상층에서 하층으로 하락한 비중은 3.4%, 상층에서 중간층으로 하락한 비중은 7.8%, 그리고 중간층에서 하층으로 하락한 비중은 8.2%를 차지하였다. 반대로, 모국에서보다 한국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하였다고 평가한 비중은 22.1%로 나타났고, 이들 중에서 하층에서 중간층으로 상승한 여성결혼이민자가 13.4%를 차지하였고, 하층에서 상층으로는 3.3%, 그리고 중간층에서 상층으로 상승한 비중은 5.5%로 나타났다. 모국에서보다 한국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락했다는 평가한 비중과 상승했다고 평가한 비중이 거의 비슷하나, 지위가 상승했다는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모국과 한국에서 동일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한 비중은 59.5%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들 중에는 계속 중간층으로 남아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가 44.2%로 가장 높았고, 계속 하층으로 평가한 비중은 8.7%, 그리고 계속 상층으로 평가한 비중은 5.6%를 차지하였다. 즉, 국제결혼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sup>6</sup> 박재규(2013)는 2009년 경기지역 남녀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본국과 국내에서 평가한 계층지위 변화를 크게 하강이동, 상승이동, 그리고 계속해서 동일한 지위로 인식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 대체로 결혼이민자는 본국보다 국내에서 인식하고 있는 사회계층 지위가 열악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국내 거주기간이 오래된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내에서 자신의 사회계층 지위가 하층으로 하락했다고 인식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3. 국제결혼을 통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구분		표본 수	비중(%)
지위 하락 (19.4%)	상층에서 하층으로	379	3.4
	상층에서 중간층으로	862	7.8
	중간층에서 하층으로	912	8.2
변화 없음 (58.5%)	계속 하층	968	8.7
	계속 중간층	4,895	44.2
	계속 상층	619	5.6
지위 상승 (22.1%)	하층에서 중간층으로	1,481	13.4
	하층에서 상층으로	362	3.3
	중간층에서 상층으로	607	5.5
합계		11,085	100

자료: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3. 분석모형

본 논문은 모국가족 사회경제적 지위와 한국가족 사회경제적 지위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며,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모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른 변수들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변수이므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특성 변수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종속변수 간의 내생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변량 순위 프로빗 모형을 이용할 수 있다.<sup>7</sup>

$y_{1i}^*$ 와  $y_{2i}^*$ 는 각각  $i$ 번째 응답자의 모국과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낸다고 하자. 두 변수 모두 그 값이 조사에서 직접 나타나지는 않는 일종의 잠재변수들(latent variables)이다.  $y_{1i}^*$ 와  $y_{2i}^*$ 의 모형식은 다음과 같이 결합하여 설정할 수 있다(Maddala 1983; Lokshin and Ravallion 2005).

<sup>7</sup> Lokshin and Ravallion(2005)은 이변량 순위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적 상황(가장 못사는 가족에서부터 가장 잘 사는 가족까지의 5점 척도)이 자가 건강상태 평가(‘매우 나쁨’부터 ‘매우 좋음’까지의 5점 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권오상 외(2010)는 5점 척도로 계측된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도나 이해도 변수가 농업부문 공공 R&D 사업을 위한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변량 순위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였다.

$$(1) \begin{aligned} y_{1i}^* &= X_{1i}'\beta_1 + \epsilon_{1i}, \\ y_{2i}^* &= X_{2i}'\beta_2 + \gamma y_{1i}^* + \epsilon_{2i} \\ \begin{pmatrix} \epsilon_{1i} \\ \epsilon_{2i} \end{pmatrix} &\sim N\left[\begin{pmatrix} 0 \\ 0 \end{pmatrix}, \begin{pmatrix} 1 & \rho \\ \rho & 1 \end{pmatrix}\right] \end{aligned}$$

단,  $\beta_1$ 과  $\beta_2$ 는 추정계수 벡터(vector)이며,  $\gamma$ 는 스칼라(scalar)이다.

단,  $y_{1i}^*$ 는 모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y_{2i}^*$ 는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잠재 변수이다.  $X_{1i}$ 는 모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 벡터이고,  $X_{2i}$ 는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 벡터이다.

식 (1)의 모수 식별(parameter identification)을 위해서는  $X_1$  중 최소한 하나의 변수는  $X_2$ 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배제제약조건(exclusion restrictions)이 부여된다. 또한 두 종속변수는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오차항  $\epsilon_1$ 과  $\epsilon_2$ 는 상관계수  $\rho$ 을 가지는 이변량 표준정규분포(bivariate standard normal distribution)를 따르는 확률변수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두 잠재변수들을 위해, ‘가장 잘 사는 가족’의 경우 11, 그리고 순서대로 그 등급이 감소하여 ‘가장 못하는 가족’의 경우 1의 값을 가지는 다음의 두 개의 대응변수  $y_{1i}$ 와  $y_{2i}$ 가 분석에 사용된다.

$$(2) \begin{aligned} y_{1i} &= \begin{cases} 1 & \text{if } y_{1i}^* \leq c_{11} \\ 2 & \text{if } c_{11} < y_{1i}^* \leq c_{12}, \\ \vdots \\ j & \text{if } c_{1j-1} < y_{1i}^* \end{cases}, \quad y_{2i} = \begin{cases} 1 & \text{if } y_{2i}^* \leq c_{21} \\ 2 & \text{if } c_{21} < y_{2i}^* \leq c_{22} \\ \vdots \\ K & \text{if } c_{2K-1} < y_{2i}^* \end{cases} \end{aligned}$$

단,  $c_{11} < c_{12} < \dots < c_{1j-1}$  ( $1 \leq j \leq 11$ ),

$c_{21} < c_{22} < \dots < c_{2K-1}$  ( $1 \leq K \leq 11$ )

식 (1)에서  $y_{1i} = j$ 이고  $y_{2i} = k$ 일 확률은 다음과 같다.

$$(3) \begin{aligned} \Pr(y_{1i} = j, y_{2i} = k) &= \Pr(c_{1j-1} < y_{1i}^* \leq c_{1j}, c_{2k-1} < y_{2i}^* \leq c_{2k}) \\ &= \Pr(y_{1i}^* \leq c_{1j}, y_{2i}^* \leq c_{2k}) \\ &\quad - \Pr(y_{1i}^* \leq c_{1j-1}, y_{2i}^* \leq c_{2k}) \\ &\quad - \Pr(y_{1i}^* \leq c_{1j}, y_{2i}^* \leq c_{2k-1}) \\ &\quad + \Pr(y_{1i}^* \leq c_{1j-1}, y_{2i}^* \leq c_{2k-1}) \end{aligned}$$

그러나 오차항  $\epsilon_1$ 과  $\epsilon_2$ 는 상관계수  $\rho$ 을 가지는 이변량 표준정규분포(bivariate standard normal distribution)를 따르는 확률변수일 경우, 식 (3)은 식 (4)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Lokshin and Ravallion 2005).

$$(4) \Pr(y_{1i} = j, y_{2i} = k) = \Phi_2(c_{1j} - X'_{1i}\beta_1, (c_{2k} - \gamma X'_{1i}\beta_1 - X'_{2i}\beta_2)\zeta, \tilde{\rho}) \\ - \Phi_2(c_{1j-1} - X'_{1i}\beta_1, (c_{2k} - \gamma X'_{1i}\beta_1 - X'_{2i}\beta_2)\zeta, \tilde{\rho}) \\ - \Phi_2(c_{1j} - X'_{1i}\beta_1, (c_{2k-1} - \gamma X'_{1i}\beta_1 - X'_{2i}\beta_2)\zeta, \tilde{\rho}) \\ + \Phi_2(c_{1j-1} - X'_{1i}\beta_1, (c_{2k-1} - \gamma X'_{1i}\beta_1 - X'_{2i}\beta_2)\zeta, \tilde{\rho})$$

단,  $\Phi_2$ 는 누적 이변량 표준정규분포함수(bivariate standard normal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zeta = \frac{1}{\sqrt{1 + 2\gamma\rho + \gamma^2}}$ ,  $\tilde{\rho} = \zeta(\gamma + \rho)$

식 (4)과 같이 표현되는 확률들이 포함된  $i$ 번째 응답자의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5) \ln L_i = \sum_{j=1}^J \sum_{k=1}^K I(y_{1i} = j, y_{2i} = k) \ln Pr(y_{1i} = j, y_{2i} = k) \\ 1 \leq J \leq 11, 1 \leq K \leq 11$$

표본 전체  $N$ 에 대한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전체 로그우도함수를 극대화하는  $\beta_1, \beta_2, \rho$  등의 추정치를 도출할 수 있다.

$$(6) \ln L = \sum_{i=1}^N \sum_{j=1}^J \sum_{k=1}^K I(y_{1i} = j, y_{2i} = k) \ln Pr(y_{1i} = j, y_{2i} = k) \\ 1 \leq J \leq 11, 1 \leq K \leq 11$$

위와 같은 모형 설정을 연립 이변량 순위 프로빗 모형(simultaneous bivariate ordered probit model)이라고 한다. 또한  $\gamma = 0$ 인 경우,  $\zeta = 1$ ,  $\tilde{\rho} = \rho$ 이 되고, 이는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이라 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립 이변량 순위 프로빗 모형(simultaneous bivariate 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하여, 모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평가 모형과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평가 모형을 동시에 추정하여 각 모형의 설명벡수벡터를 추정할 것이다.

#### 4. 분석 결과

연립 이변량 순위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주관적인 국내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설명변수에는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특성변수인 모국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포함된다. 따라서 모형 추정을 위해서는 현재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뿐만 아니라 모국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의 설정도 필요하다. 설명변수 대부분은 사회계층 결정 이론 및 선행연구(조동기 2006; 윤인진·김상돈 2008; 서광민 2009; 박재규 2013)에서 설정한 것과 같은 변수들이다. 사회계층의 결정 이론에서 승계된 지위는 거주 지역, 가족 배경 및 재산, 사회적 상호작용 등이며, 획득된 지위는 교육, 직업, 소득 등이다.

우선, 모국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 연령, 학력 등의 인적자본 변수와 모국에서의 취업 여부 및 직업유형 등을 설정하였다. 그 다음,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는 여성결혼이민자 본인 특성 변수(출신국,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실력, 국내 취업 여부<sup>8</sup>), 배우자 특성 변수(배우자의 연령, 학력, 취업 여부 및 직업 유형 등), 가족 특성 변수(자녀수, 주택소유 여부, 거주지역 등) 등을 설정하였다.<sup>9</sup>

<표 4>는 먼저 일반적인 경우처럼 모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단일 순위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추정한 결과이다. 한편,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국 사회경제적 지위 결정모형과 한국 사회 지위 결정모형을 동시에 추정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우선, <표 5>에서 모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평가와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이 서로 독립적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가설 ( $\rho=0$ )의 우도비검정(Likelihood Ratio test) 결과가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 두 모형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에서의 직업 유형 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할 수도 있으나, 취업한 여성의 직업이 대부분 서비스 또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여 직업유형 간 변이(variation)가 거의 없어 추정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 취업 직업유형 변수는 제외하였다.

9 상관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s) 또는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측정을 통해 설명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진단한 결과, 모든 변수들의 VIF가 2 이하이므로 변수들 간에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VIF가 5.3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하고, VIF가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이는 모국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를 외생 설명변수로 설정하면 추정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표 4>의 단일 순위 프로빗 모형처럼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모형에서 모국의 지위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모형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표 5>의 이변량 순위 프로빗 모형은 <표 4>의 순위프로빗 모형에 비해 보다 통계적으로 우월한 설명력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표 4>의 동남아시아 출신국, 러시아 출신국, 기타 출신국 더미변수의 추정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표 5>에서는 모든 다른 국가 출신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북미 및 서유럽 출신들에 비해 한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출신국 더미변수가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출신국에 따라 모국에서의 지위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간접적으로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이변량 순위 프로빗 모형에서는 일종의 의사결정 경계치(threshold)  $c_{ij}$ 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5>에서 우선 모국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결정모형 추정 결과<sup>10</sup>를 살펴보면, 북미 및 서유럽 출신들에 비해서 다른 국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모두 상대적으로 모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본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경험이 있을수록 모국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Blanchflower and Oswald(2011)는 교육과 기술이 높을수록 삶의 성취감과 경제적 능력이 높아져, 삶의 만족도 및 사회적 지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모국에서의 직업이 전문사무직이었던 여성들에 비해 다른 직업(서비스 판매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농림어업직)에 종사했던 여성들은 모국에서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국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본인의 모국에서의 지위를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최종 모형인 <표 5> 하단의 한국에서의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추정 결과, 모국 사회경제적 지위는 한국 사회경제적 지위에 양(+)<sup>10</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국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또는 낮다고) 인식할수록, 한국 사회경제적 지위도 높다고(또는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모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평가 모형을 단독으로 순위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모형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LR  $\chi^2(12)=1,196.9$ , Prob $\chi^2=0.000$ , Log likelihood = -20537.6).

모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평가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사회계층의 상향이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모국에서의 사회계층이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한국에서도 변하지 않는 현상은 사회계층의 불평등이 국가 간 이동에 의해 이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밖의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에는 모든 출신국 더미변수,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실력, 국내 취업 여부, 배우자의 교육수준 및 취업, 자녀 수, 주택 소유 여부, 거주 지역 등으로 나타났다.

북미 및 서유럽 출신들에 비해 다른 국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서도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본인의 한국어 실력이 좋다고 평가할수록,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언어 능력이 취업 및 직업선택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여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사회에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언어 및 문화적 차별대우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여 심리적으로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한편,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런 변수들의 음(-)의 추정치가 의미하는 바는, 국내 거주기간이 오래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계층 지위가 하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결혼 이후 시간이 더 지날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혹은 사회경제적 생활수준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결과는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락해서라기보다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처한 현실 자각과 상황 인지도가 높아지고, 모국보다 한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의 기준이 상승한 동시에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비해 자신이 더 나아지지 못했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지위가 하락된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국제결혼을 통한 사회경제적 생활수준 향상을 추구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적달성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른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배우자의 개인 특성이 국내 사회경제적 지위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배우자가 취업을 한 경우 국내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배우자의 직업이 전문사무직인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sup>11</sup> 이와 같이,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높고, 일자리가 안정적인수록 여성결혼

이민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한국가족의 사회적 지위는 높게 나타나, 교육수준, 고용안정성 등 가구 소득에 직접적으로 양(+)<sup>11</sup>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취업한 경우에는 미취업 상태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국내 사회계층 지위가 오히려 올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본인의 취업보다는 배우자의 취업 및 직종 특성이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취업 여성결혼이민자 대부분이 저임금 단순직종에 종사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수입보다는 배우자 및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주택 소유 등 재산이 많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는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도시 거주자들에 비해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농촌보다 도시의 상대적 빈곤문제가 심각하여, 도시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낮다고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주관적 사회적 지위 평가는 같은 지역 거주자의 생활수준의 차이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sup>11</sup> Winkelmann and Winkelmann(1998)은 실업 등 고용의 불안정성이 삶의 만족도 평가에 매우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표 4. 순위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

구분	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한국의 사회경제적 지위 결정	모국의 사회경제적 지위	0.106*	0.002
	중국 출신	-0.325**	0.065
	동남아시아 출신	-0.040	0.068
	동북아시아 출신	-0.342**	0.059
	러시아 출신	-0.053	0.078
	기타 출신	-0.097	0.074
	한국 거주기간	-0.009***	0.002
	한국어 실력	0.058***	0.010
	한국에서 취업 여부	-0.073***	0.021
	배우자의 연령	-0.001	0.001
	배우자 교육수준	0.091***	0.011
	배우자 취업 여부	0.321***	0.040
	배우자 직업: 서비스판매직	-0.016	0.042
	배우자 직업: 기능직	-0.131***	0.031
	배우자 직업: 단순노무직	-0.309***	0.038
	배우자 직업: 농림어업	-0.161***	0.044
	자녀 수	-0.046***	0.011
	주택 소유 여부	0.314***	0.021
	농촌 거주 여부	0.042*	0.023
경계치	/cut1		-1.14***
	/cut2		-0.73***
	/cut3		-0.21
	/cut4		0.15
	/cut5		0.45***
	/cut6		1.91***
	/cut7		2.17***
	/cut8		2.56***
	/cut9		2.94***
	/cut10		3.44***
관측 수	11,085		
lnL	-18857.996		

주: 1) \* p<0.05; \*\* p<0.01; \*\*\* p<0.001

2) 추정을 위해 제외된 출신국 더미변수는 '북미, 서유럽/대양주', 직업 더미변수는 '전문사무직'임.

표 5. 이변량 순위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

구분	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모국의 사회경제적 지위 결정	중국 출신	-0.546***	0.062	
	동남아시아 출신	-0.804***	0.065	
	동북아시아 출신	-0.297***	0.066	
	러시아 출신	-0.587***	0.075	
	기타 출신	-0.582***	0.070	
	연령	0.001	0.001	
	교육수준	0.125***	0.010	
	모국에서 취업 여부	0.163***	0.030	
	모국 직업: 서비스판매직	-0.150***	0.028	
	모국 직업: 기능직	-0.167***	0.040	
	모국 직업: 단순노무직	-0.284***	0.036	
	모국 직업: 농림어업	-0.367***	0.057	
	모국의 사회경제적 지위	0.093***	0.022	
한국의 사회경제적 지위 결정	중국 출신	-0.456***	0.065	
	동남아시아 출신	-0.244***	0.067	
	동북아시아 출신	-0.400***	0.069	
	러시아 출신	-0.179**	0.078	
	기타 출신	-0.231***	0.074	
	한국 거주기간	-0.008***	0.002	
	한국어 실력	0.059***	0.010	
	한국에서 취업 여부	-0.068***	0.021	
	배우자의 연령	-0.001	0.001	
	배우자 교육수준	0.097***	0.011	
	배우자 취업 여부	0.325***	0.039	
	배우자 직업: 서비스판매직	-0.021	0.041	
	배우자 직업: 기능직	-0.136***	0.031	
	배우자 직업: 단순노무직	-0.314***	0.037	
	배우자 직업: 농림어업	-0.172***	0.043	
	자녀 수	-0.043***	0.011	
	주택 소유 여부	0.306***	0.021	
농촌 거주 여부	0.037*	0.023		
상관계수	$\rho$	0.212***	0.010	
경계치	/cut11	-2.20***	/cut21	-1.83***
	/cut12	-1.66***	/cut22	-1.43***
	/cut13	-1.17***	/cut23	-0.92***
	/cut14	-0.85***	/cut24	-0.57***
	/cut15	-0.62***	/cut25	-0.28***
	/cut16	0.64***	/cut26	1.15***
	/cut17	0.87***	/cut27	1.41***
	/cut18	1.26***	/cut28	1.79***
	/cut19	1.64***	/cut29	2.16***
	/cut110	2.18***	/cut210	2.65***
관측 수	11,085			
lnL	-39404.162			
Wald chi2(12)	1185.50*** (Prob>chi2=0.0000)			
우도비검정	426.19*** (Prob > chi2 = 0.0000)			

주: 1) \* p<0.05; \*\* p<0.01; \*\*\* p<0.001

2) 추정을 위해 제외된 출신국 더미변수는 ‘북미, 서유럽/대양주’, 직업 더미변수는 ‘전문사무직’임.

##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특성, 배우자 특성, 가구 특성 등 개인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모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연립 이변량 순위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 사회적 지위 상승을 꿈꾸며 결혼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사회계층의 상향이동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사회계층 이동의 한계 및 국가간 사회계층 불평등 현상의 고착화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는 국내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객관적인 경제적 지위의 하락일수도 있으나, 주관적인 인식의 변화도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즉,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모국보다 한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의 기준이 상승한 동시에,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비해 자신이 더 나아지지 못했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 또는 국제결혼을 통한 사회경제적 생활수준 향상을 추구하였지만, 그 목적달성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른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국제결혼을 통해 보다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꿈꾸었던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그 꿈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아 삶의 질이 하락될 가능성도 높다(박재규 2013).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소외감 및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교육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데 필요한 물적 지원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거주기간이 오래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생활지원 및 상담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문화 관련 정책은 한국어교육, 사회적응 지원 등 이민 초기 적응을 위한 정책이 대부분이고, 거주기간이 오래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방안이 부족한 편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빈곤에 처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확대 및 최저생계비 보장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일자리 불안정성 완화 등의 소득 안정화 정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혜정. 2009. 「농촌 다문화후계세대 육성방안」. 농림수산식품부.
- 권오상 외. 2010.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가 농업부문 공공 R&D사업을 위한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2변량 순위 프로빗 CVM 분석.” 「농업경제연구」 제51권 제4호. pp. 75-95.
- 김경미.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과 한국생활 만족도: 중국, 베트남, 일본 출신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5권 제2호. pp. 185-208.
- 김병조. 2000. “한국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제34집(여름호) pp. 241-268.
- 김선희.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결혼행복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의 외. 2014. 「소비자 행동론」. 형설출판사.
- 박대식, 최경은. 2008. 「농촌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재규.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 관련 요인 분석.” 「농촌경제」 제29권 제3호. pp. 67-84.
- 박재규. 2013. 「한국사회 국제결혼 이민자의 사회계층 이동 연구: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IOM이민정책연구원.
- 박진아. 2014.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가 한국정착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인진·김상돈. 2008.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계층의식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도시행정학보」 제21권 제2호. pp. 153-186.
- 조동기. 2006.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인구학」 제29권 제3호. pp. 89-109.
- 허철행. 2012. “다문화가정의 결혼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5권 제4호. pp. 201-228.
- Blanchflower, D. G. and A. J. Oswald. 2011. “International Happiness: A New View on the Measure of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vol. 25, no. 1, pp. 6-22.
- Bodvarsson, O. B. and H. Van den Berg. 2009. *The Economics of Immigration: Theory and Policy*, Springer.
- Borjas, G. J. 1999. “The Economic Analysis of Immigration.” in O. C. Ashenfelter and D. Car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3A, North-Holland.
- Lokshin, M., and M. Ravallion. 2005. “Searching for the economic gradient in self-assessed health.”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698.
- Maddala, G. S. 1983. *Limited 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Econometric Society Monographs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nturini, A. 2004. *Postwar Migration in Southern Europe, 1950-2000: An Economic*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Winkelmann, L. and R. Winkelmann. 1998. "Why Are the Unemployed So Unhappy? Evidence from Panel Data." *Economica*. vol. 65, no. 27, pp. 1-15.

원고 접수일: 2015년 1월 26일
원고 심사일: 2015년 1월 26일
심사 완료일: 2015년 3월 17일